

도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총력

송하진 도지사, 유럽 스카우트총회 참석 리셉션 등 통해 준비과정 소개·협조 요청 예정

전북도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6월17일부터 23일까지 노르웨이에서 개최되는 유럽스카우트 총회에 참가하여 성공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유럽총회는 우리나라와 세계잼버리 유치경합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 가 소속돼 있는 지역이다.

세계스카우트는 아메(24), 유라시아(9), 아랍(18), 유럽(40), 아메리카(34), 아프리카(38)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역별 총회를 매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그중 유럽은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아태지역보다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나라가 16개 국가가 더 많은 권역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 등 지역 인사들은 어느 지역총회보다 유럽총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참석하여 유치전략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유치활동에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그 일환으로 노르웨이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유치경쟁 대상인 폴란드 대표단과 오찬을 하면서 공정한 유치활동과 선의의 경쟁을 제안할 계획이다.

도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후보 국가들의 접수를 마감한 이후 경쟁국의 현지역 분석



감사원, 대우조선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 감사국장 이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감사원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들의 부실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및 대응방안과 최상의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폴란드 스카우트연맹에 공식사함을 보내 폴란드 개최후보지인 그단스크를 다녀온 바 있다.

기존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고자 하는 후보지역들 간의 이러한 행보는 세계스카우트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꼽힌다.

유럽총회 기간 중에 세계연맹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유럽연맹 의장 및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받

았으나 최근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스웨덴(2011) 대표단, 영국(2007년) 대표단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유치경험과 개최 방안을 자문 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치단의 핵심 유치활동으로 리셉션을 개최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주요인사 120여명을 초청하여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의 유치준비과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유치협조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2023 세계잼버리 최종 개최지는 2017년 8월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확정되며 163개국 회원국별 6표씩(총978표) 투표권행사를 통해 결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귀국길에 앞서 송하진 도지사 일행은 새만금 항 및 농업융합 개발과 관련하여 로테르담 식품항만과 웨스트랜드의 첨단 유린은 실 단지를 시찰하고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농식품부, 소스산업화센터 조성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스산업화센터 조성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소스산업화센터는 전라북도에서 제안하고 농식품부에서 지난 2년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심사를 기울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책 사업으로 식품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소스산업은 세계 시장 1,040억달러(약 120조원), 국내 시장 3,700억(14년 기준) 규모로 추산되며, 액상소스, 드레싱, 건조·분말 소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연평균 약 4.8% 정도의 성장이 예측되며 식생활의 다양화 가능성 부가 간편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스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외국은 프랑스(머스터드, 마요네즈), 중국(굴소스), 태국(스위트칠리소스), 일본(노부소스, 기꼬만), 이탈리아(미트소스), 인도(우스터소스), 미국(타르타르소스) 등 다수의 대표소스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글로벌 소스와 추진 체계가 없어 세계 다국적 식품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소스 발달과 육성, 중소 식품기업의 전통 발효 소재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을 위한 소스산업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스산업화센터는 한국적 글로벌 킬러스 제품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소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육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소스산업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 기능과 상호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안

위 원료 농산물의 확보가 가능하며 교통과 물류,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최적지임에 따라 해외 소스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통 발효 식재료를 기반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킬러스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또한 세계 소스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기관 확보로 합식의 세계화와 도 농생명산업 발달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시너지효과로서 식품산업의 규모화로 투자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스산업화센터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농식품부와 익산시가 106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부지 6,600㎡에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가 요구하는 기술·제품 개발생산) 생산시설과 장비, 건축 등 H/W를 구축하여 소스 시제품생산에 지원하고 중소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소스산업 정보제공(레시피, 수출 및 산업정보 등), R&D 지원 등 다각적인 S/W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해소를 위한 단순 지원기관에서 벗어나 상품화 중심의 비즈니스 가능 마케팅 전문인력과 관계기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통합지원체제로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현재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국가식품산업은 40%,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은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은 금년 9월 준공 후 본격적인 지원센터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8일 시행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18일에 치러진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682명을 선발하는 '2016년 제3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18일 전주 시청학당 등 1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 임용 필기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9대이며, 일반행정 9급의 경우 180.5대에 가장 높았다. 도 관계자는 "시험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입실해야 한다"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내달 29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GAP 인증면적 확대 추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Free Zone 조성·인증 검사비 지원·관리시설 증설·판로 확대 등 통해

전북도는 FTA 등 개방화시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15일 전북도 GAP 인증면적은 16년 5월말 11,726ha로 지난해 11,009ha 보다 717ha(6.5%)가 증가했으며, 전국 69,278ha 대비 16.9%를 점유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GAP 제도는 도입된지 10년이 흘렀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GAP 농산물의 판로, 가격차별성 부족, 정책지원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소비자들의 품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

세에 맞춰 농업인의 참여를 높여 나갈 방침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농업인들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GA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중 토양·용수 분석비가 34%로 농가부담이 큰 만큼 주산지 및 공동경영체 등에 18억 원을 투자해 토양·용수 GAP Free Zone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GAP 인증에 따른 검사비로 5억 원을 지원해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GAP 관리시설도 5억 원을 투자해 6개소를 추가로 신설, 종전 70개소에서 7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도 GAP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소규모 농가도

GAP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 GAP 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해 로컬푸드매장,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등을 통해 GAP 농산물 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24개의 로컬푸드 매장에 GAP 농산물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도내 11개 시군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GAP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웰빙·안전·개방화 시대에 맞춰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우리 농업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안 마련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처는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구호급,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수색·구조,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복구지원 운영지침과 지원단가를 마련해 고시했다. /정영수 기자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건강보험료 정액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앞으로 지원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복구계획을 마련해 복구지원을 요청할 때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사
- 한국스피치 & 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광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